

2024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정오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1, 2번을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모두 '0점 처리'됩니다.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두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이명준’과 제시문 (다)의 ‘외스타슈’의 입장을 각각 서술하시오.
- (2) 제시문 (가)에 나타난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서술하고, 이것을 적용하여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비교하시오.

**제시문 (가)**

자유주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에서는 정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 등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공화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실현이 정치 공동체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개인선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되는 공동선도 중시한다. (중략)

자유주의적 애국심은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에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애국을 개인의 양심 문제로 여긴다. 또 애국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애국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반면에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란 시민의 자유를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자발적 사랑(카리타스, caritas)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권력자나 외부 세력으로부터 정치 공동체의 자유를 수호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화주의는 애국심을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감정이 아니라 시민이 정치와 공적인 일에 참여할 때만 생기는 열정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혈연, 지연, 전통에 기초한 선천적 애착을 강조하며 보통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소속된 민족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르낭은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어떤 집단에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귀속되어 자발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민족도 순혈은 없기에 혈연으로 민족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민족이란 개개인이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 치씩이라도 길을 내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명준은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한탄했다. 적어도 남만큼 한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윽게 써 나간다는 삶조차도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 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 나와 참회해야 할 것이었다.

그렇다면? 남녘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키르케고르 선생 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숯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일이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온 것이다.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중립국.” (중략)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만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중략)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 제시문 (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백 년 전쟁(1337~1453), 그 초기에 칼레시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11개월 간이나 영국인들의 공격을 잘 막아 냈다. 그러나 영국군의 방어 태세에 자신감을 상실한 나머지 프랑스 왕 필리프 6세가 칼레시로 향하던 군사들에게 발길을 돌리라 명하자, 칼레시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영국에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깨달은 칼레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칼레의 사자를 접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질 줄 몰랐다.

이때 왕의 측근 윌테 머네이 경이 왕 앞에 나서 자비를 구하자 왕은 마음을 고쳐먹은 듯 입을 열었다. “좋다. 자비를 베풀겠노라.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여섯 명만은 예외이다. 그것이 나의 조건이다.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나에게 걸어와야 할 것이며, 목에는 교수형에 쓸 밧줄을 메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겠지.”

이 소식은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들은 결국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 여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등으로 피 같은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순간, 외스타슈라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자, 우리 자원해서 희생합시다. 우리는 싸움에 져서 항복했을 뿐이지 우리의 열과 닢마저 내어준 것은 아니오. 제비뽑기 같은 것을 해서 희생자를 뽑는다면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것이오.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자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외스타슈는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듯 제일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그렇게 여섯 명이 채워졌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송별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시장 광장에서 에드워드의 진지를 향해 나아갔다.

### 제시문 (라)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 보려고 했다.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쓰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쓰루하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 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한번은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 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참으로 서글펐다.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하고 여러 번 후회했다.

### 제시문 (마)

나는 연주와 본능적으로 많이, 아주 많이 닮아 있었지만, 같은 배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곧 분화의 위치에 놓인 두 마리의 도롱뇽 같아서 도무지 같은 시각으로 함께 현실을 해석할 수 없었다. 반면 너와 나는 애초부터 한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오리와 닭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와 배경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인적인 습관과 취향을 송두리째 공유할 수는 없었다. 매번 그들과 만나고 돌아올 때면,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더 또렷이 느끼곤 했다. “넌 완-전 너잖아.” 마라탕을 먹으면서 사실 나는 너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절대로 연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닮지 않았기에 너는 온전히 너 자신이었다. 연주가 온전히 연주인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아기자기한 한국 소품들로 가득 찬 연주네 집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연주가 사 온 ‘코리안 빵집’의 앙금 빵에 믹스 커피를 마시며, 책장 옆에 붙은 한국 지도와 거기 그려진 무궁화를 구경하다가 나는 속으로 문득,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그녀들이 될 수 없는 거구나.’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자체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와 ‘저’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회색 지대, 그 지대마다 완전히 그 지대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완전수 사이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처럼.

봄이 거의 다가올 무렵, 나와 남편은 우리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한 최초의 ‘우리 집’으로 가 보았다. 빼꺼하고 둔중한 철제문이 눈앞에서 열리는 순간, 나는 중국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 ‘우리 집’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 집의 틀, 집의 뼈대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다.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의 분양법이 더 인간적일 수도 있었다. 입주자의 취향대로 설계하고 인테리어하고 채워 넣을 수 있는, 소위 중국 대륙식 ‘모피집’. 나는 손을 내밀어 그 차갑고도 딱딱한 시멘트 벽체들을 가만히 만져 보았다. 그 불변하면서도 확실한 ‘우리 집’의 현실이 내 손가락 끝에서 견고하게 버티어 서 있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겠지?” 남편은 미터자로 각 방의 길이며 너비며 높이를 꼼꼼히 재어 보았다.

[문항 1]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

1. 출제 의도

- 정치 공동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다면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텍스트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b>과목명: 윤리와 사상</b>	
	성취기준 1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b>관련</b>	
	제시문 (가)	
	2. 국어과 교육과정	
<b>과목명: 국어</b>		
성취기준 2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12문학03-06]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b>관련</b>		
제시문 (나), 제시문 (마)		
<b>과목명: 독서</b>		
성취기준 3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b>관련</b>		
제시문 (다), 제시문 (라)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8인	비상교육	2019	181~184쪽	제시문 (가)	O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9인	미래엔	2019	182~187쪽	제시문 (가)	O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9	182쪽	제시문 (가)	O
문학	류수현 외 7인	금성출판사	2019	244~248쪽	제시문 (나)	O
독서	한철우 외 6인	비상	2019	199~201쪽	제시문 (다)	O
독서	한철우 외 6인	비상	2019	55쪽	제시문 (라)	X
문학	최원식 외 13인	창비	2019	235~237쪽	제시문 (마)	O

###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1]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 개념을 적용하여 &lt;광장&gt;의 이명준과 칼레시의 시민 외스타슈의 입장을 해석하는 문제임.</li> </ul>
[문항 1]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과 르낭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근거로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에 나타난 민족에 대한 관점을 비교·분석하는 문제임.</li> </ul>

### 4. 채점기준

[문항 1]의 (1)	
준거1	<b>제시문 (가)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점을 기술할 것</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주의는 개인을 자기 삶의 결정권을 지닌 자율적 존재로 바라봄.</li> <li>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개인선을 중시함.</li> <li>자유주의는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애국으로 보고 애국을 개인의 양심 문제로 여김.</li> <li>공화주의는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봄.</li> <li>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동선을 중시함.</li> <li>공화주의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자발적 사랑을 애국으로 여김.</li> </ul>
	<b>제시문 (가)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문 (나)의 이명준과 제시문 (다)의 외스타슈의 입장을 설명할 것</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나)의 이명준은 자유주의이고 제시문 (다)의 외스타슈는 공화주의의 입장에 있음.</li> <li>제시문 (나)의 이명준은 정치 공동체인 남한과 북한을 모두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중립국을 택함.</li> <li>제시문 (다)의 외스타슈는 칼레시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대승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함.</li> </ul>
[문항 1]의 (2)	
준거1	<b>제시문 (가)에 나타난 민족의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할 것</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가)에 나타난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 일반적 관점은 혈연, 지연, 전통에 기초한 공동체를 민족이라고 봄.</li> <li>제시문 (가)에 나타난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 르낭의 관점은 개개인이 자기 의지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집단을 민족이라고 봄.</li> </ul>
	<b>제시문 (가)에 나타난 민족의 관점을 근거로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비교·분석할 것</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라)는 민족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음.</li> <li>제시문 (라)에서는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 조선인으로 살지 않는 것을 거짓이고 잘못이라고 여김.</li> <li>제시문 (마)는 민족에 대한 르낭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li> <li>제시문 (마)의 '나'는 회색지대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 온전하다고 여기고 자신이 속할 공동체를 선택함.</li> </ul>

## 5. 대학 제시 답안

- (1) 제시문 (가)에서는 정치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로 구분해 서술한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자기 삶의 결정권을 지닌 자율적 존재로 바라본다. 이때 정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공동선보다는 개인선을 중시한다. 또한 자유주의는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애국으로 보며, 애국을 개인의 양심 문제로 여긴다. 반면에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며, 시민의 의무와 공동체의 삶을 강조한다. 정치 공동체가 없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실현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개인선뿐만 아니라 공동선도 중시한다. 또한 공화주의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자발적 사랑을 애국으로 여긴다. 애국심을 정치와 공적인 일에 참여할 때 생기는 열정으로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개념을 근거로 할 때 제시문 (나)의 이명준은 자유주의, 제시문 (다)의 외스타슈는 공화주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준은 자율적 존재로 살 수 없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거부하고 하루 종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기 성격도 스스로 골라잡을 수 있는 삶을 꿈꾸며 '중립국'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의 외스타슈는 영국에 행복하게 된 칼레시와 시민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 제시답안 글자 수: 695자(공백 포함)

- (2) 제시문 (가)에서는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한다. 일반적 관점은 민족을 혈연, 지연, 전통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속한 민족에 대해 선천적 애착과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야 한다고 여긴다. 다른 하나는 르낭의 관점으로, 그는 민족을 혈통과 무관하게 개인이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 제시문 (라)는 일반적 관점을 취한다. 민족을 혈연, 지연, 전통에 기초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일본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으나,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 속하게 된 조선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마)는 르낭의 관점과 유사하게 민족을 바라본다. '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자기를 그 자체로 완전한 '회색지대'와 '소수'로 긍정하고, 자신이 속할 공동체를 선택한다. 중국이 마련해 준 모피집을 '우리 집'이라고 여기며 기꺼이 들어가려 한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 자신의 귀속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르낭의 민족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제시답안 글자 수: 564자(공백 포함)

**[문항 2]**

-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제시문 (다)가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와 이 원칙의 장점과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 (2) 제시문 (라)와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했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산상·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피해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 사람에게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책하던 중에 자전거 운전자의 부주의로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다면 피해자는 부상 정도와 회복 기간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배상과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하며, 이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러 한 행동뿐만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행위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둘째, 가해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거나,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이를 비난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넷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에는 재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 자유, 명예 등의 침해에 따른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다섯째,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사건의 전후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손해 배상이라고 하며, 민법에서는 손해에 대해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폭행을 당해 치료비가 발생하고, 치료 기간 일을 못 해 임금 손실이 발생하면 가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폭행의 후유증으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의 형식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시문 (나)**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독과점 등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유권 절대 원칙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낱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며, 계약 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과실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 민법에서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되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 행사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보완되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요구로 보완되었다. 이는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나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시문 (다)**

(1) □□ 기업이 생산한 A 제품을 10년간 이용해 왔던 소비자 중 많은 사람에게서 유사한 폐 질환이 발견되었다. □□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지만 A 제품의 성분 중 폐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으며, 이 제품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발병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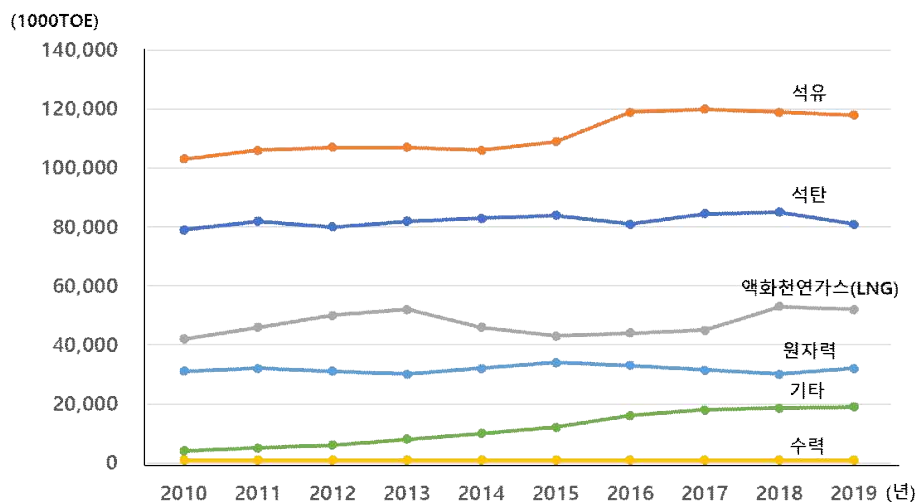
**제시문 (라)**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나 개발 활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여 연구와 개발, 그 활용에 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외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과학 기술자의 외적 책임, 즉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 윤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임 윤리에 따르면,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견하여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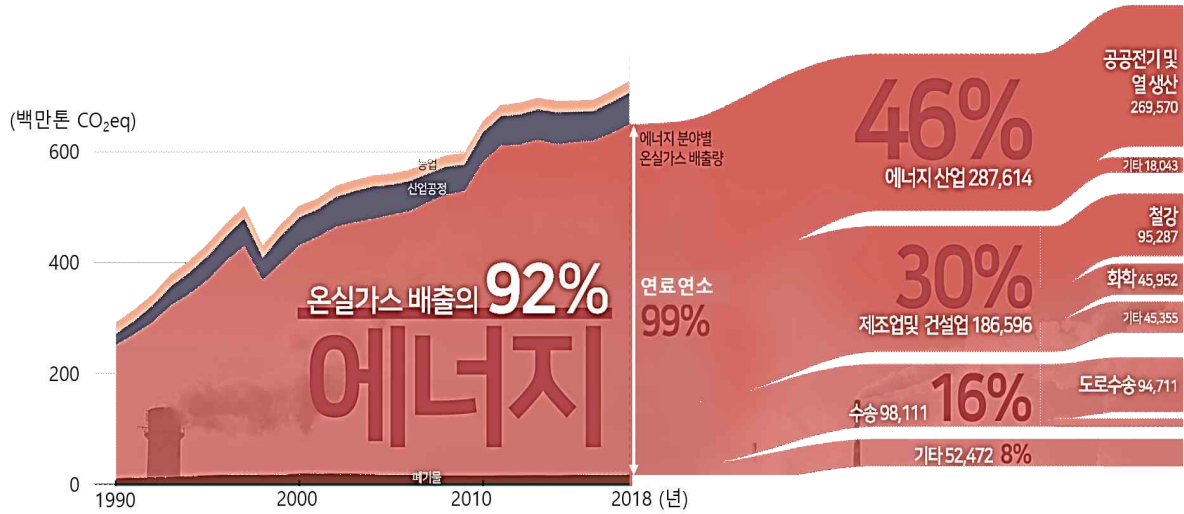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과학 기술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의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각종 윤리 위원회 활동으로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강화하고,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 기술 영향 평가 제도: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이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사전에 방지하여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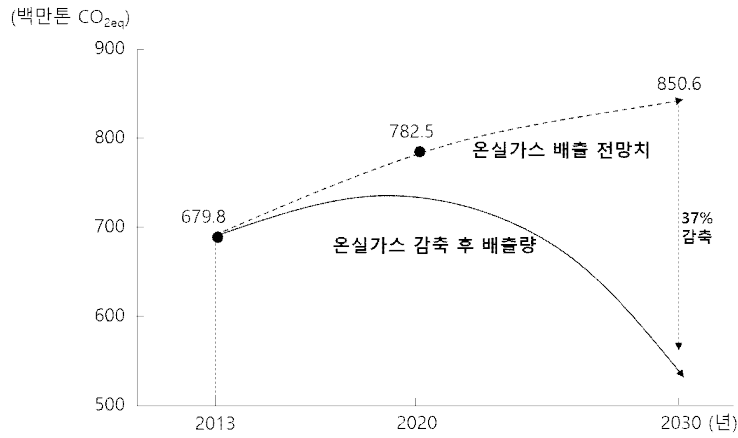


\* TOE : 석유 환산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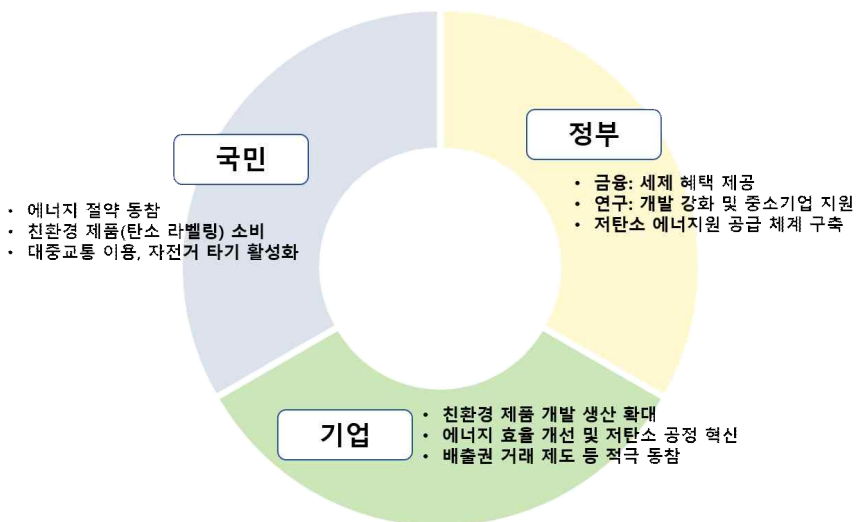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수요구조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2] 1990~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구분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그림 3]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안



[그림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역할

[문항 2] 손해 배상 책임 원칙과 책임 윤리에 대한 이해

1. 출제 의도

- 근대 민법 기본 원리의 한계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 원칙의 차이를 파악하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자의 환경 침해나 제조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자나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과 온실가스 배출원 등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원인을 그래프에서 찾아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환경 오염 문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기업과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책임 윤리 측면에서 기업, 국가, 국민이 모두 함께하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결시킨 후 기업, 정부, 국민 각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 1	[12정법04-02] 재산 관계(계약,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2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문 (다)
	과목명: 한국지리		관련
	성취기준 3	[12한지03-02] 다양한 기후 경관을 사례로 기후 특성이 경제생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라)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정치와 법	이경호 외 5인	미래엔	2018	122~124쪽	제시문 (가)	X
정치와 법	정필운 외 8인	비상교육	2018	112쪽	제시문 (나)	X
정치와 법	이경호 외 5인	미래엔	2018	116쪽	제시문 (나)	X
정치와 법	이경호 외 5인	미래엔	2018	116쪽, 127쪽	제시문 (다)	X
통합사회	이진석 외 12인	지학사	2017	144쪽	제시문 (다)	X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7인	지학사	2017	120~121쪽	제시문 (라)	X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7인	지학사	2017	120~121쪽	제시문 (라)	X
지리부도	김감영 외 5인	금성출판사	2017	68쪽	[그림 1]	○
지리부도	최성길 외 8인	비상교육	2018	125쪽	[그림 1]	○
지리부도	박철웅 외 6인	미래엔	2017	84쪽	[그림 1]	○
지리부도	이영민 외 6인	천재교육	2017	59쪽	[그림 2]	○
지리부도	이영민 외 6인	천재교육	2017	59쪽	[그림 3]	X
지리부도	이영민 외 6인	천재교육	2017	59쪽	[그림 4]	X
교과서 외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2]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1]의 (1)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제시문 (다)가 어느 것에 해당 하는지와 이 원칙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문제임.</li> <li>• 제시문 (가)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 여부, 위법성, 가해자의 책임능력, 피해 자의 손해발생, 가해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손해 배상 책 임 원칙임을 이해해야 함.</li> <li>• 제시문 (나)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고 가해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 하기 어렵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손해 배상 책임 원칙임을 이해해야 함.</li> <li>• 제시문 (다)는 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 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에 해당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li> <li>• 무과실책임 원칙은 환경과 제조물 사용에서 발생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음.</li> <li>•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이나 환경오염 피해가 무엇인지, 원인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 및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석해야 함.</li> </ul>
[문항 2]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1]의 (2)는 [그림 1]과 [그림 2]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제시문 (라)에 나타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근거로 [그림 3]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림 4]의 부문별 역할을 설명하는 문제임</li> <li>• [그림 1]은 1차 에너지 수요 구조를 통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설명해야 함.</li> <li>• [그림 2]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과 2018년 기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을 해석 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함.</li> <li>• [그림 3]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함.</li> <li>• [그림 4]는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환경 오염 문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므 로 온실가스 배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윤리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결 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국가, 국민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li> </ul>

#### 4. 채점기준

[문항 1]의 (1)	
	<b>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의 차이점을 기술할 것</b>
준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가)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 여부, 위법성, 가해자의 책임능력,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혹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이다.</li> <li>제시문 (나)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고 가해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저야 하는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이다.</li> </ul>
	<b>제시문 (다)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것</b>
준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다)의 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에 해당한다.</li> </ul>
	<b>무과실 책임 원칙의 장점과 한계점을 설명할 것</b>
준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과실 책임 원칙은 환경과 제조물 사용에서 발생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환경을 보호하고 제조물로부터의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li> <li>그러나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물이나 환경오염 피해가 무엇인지, 원인이 누가인지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 및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li> </ul>
[문항 2]의 (2)	
	<b>[그림 1]과 [그림 2]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것</b>
준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 1]의 1차 에너지 수요 구조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li> <li>[그림 2]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고,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92%를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의 대부분(99%)이 연료 연소를 통해 발생 되는데, 연료 연소 부문 비중은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하위 단위 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전기 및 열생산, 철강, 도로 수송, 화학이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임을 나타낸다.</li> </ul>
	<b>제시문 (라)에 나타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근거로 [그림 3]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림 4]의 부문별 역할을 설명할 것</b>
준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 3]은 정부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계획을 보여준다.</li> <li>제시문 (라)를 통해서 환경 오염 문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윤리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그림 4]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국가, 국민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업은 친환경 제품 개발·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저탄소 공정 혁신, 배출권 거래제도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 혜택 부여, 친환경 연구개발 강화와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저탄소 에너지원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도 에너지 절약에의 동참, 친환경 제품 소비,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친환경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li> </ul>

## 5. 대학 제시 답안

- (1) 제시문 (가)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 여부, 위법성, 가해자의 책임능력,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혹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이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고 가해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이다. 제시문 (다)의 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에 해당한다. 무과실책임 원칙은 환경과 제조물 사용에서 발생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환경을 보호하고 제조물로부터의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물이나 환경오염 피해가 무엇인지, 원인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 및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 제시답안 글자 수: 575자(공백 포함)

- (2) [그림 1]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수요구조를 보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높다. [그림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92%를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는 거의 모두(99%) 연료 연소를 통해 발생 되는데, 연료 연소 부문 비중은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하위 단위 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전기 및 열생산, 철강, 도로수송, 화학이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그림 3]과 같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는 제시문 (라)와 같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만회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즉 [그림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역할에 따라 기업과 국가는 물론 국민이 모두 함께하는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친환경 제품 개발·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저탄소 공정 혁신, 배출권 거래제도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 혜택 부여, 친환경 연구개발 강화와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저탄소 에너지원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도 에너지 절약에의 동참, 친환경 제품 소비,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친환경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

※ 제시답안 글자 수: 752자(공백 포함)